

#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

## Practice of Everyday Life Proprieties, Dynamics of Family Syst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Married Couples

유한대학 여성교양과

겸임교수 김 연 화\*

숙명여자대학교 가정아동복지학부 가족자원경영학전공

명예교수 이 정 우

Dept. of Women's Liberal Science, Yuhan College

Additional Professor: Kim, Yeon-Hwa

Major in Family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eritus Professor : Lee, Jung-Woo

---

### 〈Abstract〉

In recent year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n increased interest in the observance of everyday life proprieties, building healthy famili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family member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proprieties, dynamics of family system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Korean married couples.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data from married couples with a child over four-years-old who are currently residing in Seoul. 513 couples(1026 individuals) were used for the final data analysis. Statistica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s, means, standard deviations, Cronbach'  $\alpha$ , Pearson correlation, paired t-test,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propriety was relatively high in both husbands and wives, and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was found in the level. Yet, there were som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ertain sub-dimensions. Wives showed a higher degree of performance in public decorum and social etiquette, whereas husbands exhibited a higher degree of performance in family decorum and communication manners. The family systems were highly dynamic, according to both husbands and wives, and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husbands and wives. As for the sub-dimensions, the extent of communication was found to be higher among husbands than among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again relatively high for both husbands and wives, with husbands significantly higher than wives.

Second,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causal model did fit the data well, and that a myriad of background variables had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se relationships were mediated by several variables in the sub-dimension of proprieties observance, family adaptability, and the degree of communication. The implication is that the practice of life propriety, an intervening variable, is crucial in improv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married couples.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demonstrate that there are significant causal relationships among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propriety, family systems dynamic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dition, the observance of proprieties is shown to be a concept that can be used as an important predictor in the area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its focus on the practice of proprieties in the family resource management. More concrete and specialized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help build healthy families. Lastly, the results indicate that proprieties education needs to be incorporated in family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y of family life.

---

▲ 주요어(Key Words) : 생활예절수행(Practice of everyday life proprieties), 가족체계역동성(dynamics of family systems),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

---

\* 주저자: 김연화(E-mail: kyhmys@unitel.co.kr)

## I. 서론

한국사회가 경제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오며 따라 우리의 삶은 물질적인 풍족감, 개인의 권익신장, 생활의 편리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발전의 딜레마, 인간성의 상실, 가족의 위기 등으로 건강한 삶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점차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화해와 협동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개개인의 심리적 복지감, 건강한 가정, 생활예절 등에 대한 관심이 각 분야에서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효율지향적 가치지향으로 인해 비인간화된 사회조직, 타인을 물질적 이해타산의 관점으로 보는 태도, 그리고 개체화 등은 가족 특히 부부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서로를 경쟁의 대상으로 보거나,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더욱이 가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부부간의 배려와 예절의 부족은 결국 부부간의 결속력이나 가족전체의 연대의식을 약화시키거나 심할 경우 가족체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실제 선행연구결과(이정우·김연화, 2001), 생활예절수행수준이 높을 경우 가족적응력을 향상시켜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하고 자아존중감도 향상시켜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을 가능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부간이나 가족간의 조화로운 적응을 위해서는 성숙한 예절의식 및 상호주의에 입각한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예절을 실천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이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건강한 가정과 사회에 필요한 요소가 되며, 예절의 기능 중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가족과 사회성원간의 화(和)의 기능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을 향상(송복, 1989; 이정우·김연화, 1998) 시킨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부의 예절수행이 가족체계의 역동과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또한 이를 통해 가족원간의 예절수행정도를 높이고, 가정에 대한 이해 및 가정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가정학에서 이루어진 예절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980년대 이후 유아, 초등생,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윤환, 1984; 김정신·노은호, 199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연화, 1999; 김지영, 2002; 김희경, 1999; 이정우·김연화, 1996, 1998; 2000; 이형숙, 1998),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정우·김경아, 1997, 1999) 및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길표, 1994, 1997; 이정우·김명나, 1999) 등이 있으나 대부분이 초·중·고·대학생들과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예절의식이나 수행실태에 관한 분석을 주로 했다는 제한점과 게다가 생활과 관련지는 다양한 변인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부연하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로는 이정우·김연화(2001)의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

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등을 부부를 한 쌍으로 하여 관련지는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

한편 가족은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서 체계론적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하면 가족을 이루는 하위체계인 가족원의 심리적 복지감이 위협받게 되는 역기능적인 체계가 된다(최연실, 1993). 따라서 가족응집성이나 적응력, 의사소통을 의미하는 가족체계역동성(Deacon & Firebaugh, 1988)은 가족원 전체와 개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게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체계역동성과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주부나 기혼 여성, 부모와 청소년 자녀(최규련, 1994, 1999), 최근에는 중년기나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심리적 복지감 연구(김순기, 2001; 박미석, 1996; 신기영, 1999; 이형실, 2000)가 있을 뿐이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족체계와 부부적응, 가족체계와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김명자, 1992; 고정자·김갑숙, 1996, 2000; 김수연·김득성, 1993; 최규련, 1994, 1995) 등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가정의 주체인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정도,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을 살펴보고, 이들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생활예절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부부들이 현재의 자기 가정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건강한 가족을 위한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부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기초적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예절관련 정책수립에도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생활예절수행

예절(禮節)은 예의범절(禮儀凡節)의 준말로써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이며, 사람이 지켜야 할 마땅한 바를 형식으로 나타낸 행동규범(이민수 역해, 禮記, 1995, 理-理之不可易者, 禮記, 仲尼燕居中設 또는 義之實-禮記, 禮連篇)이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바른 도리(道理), 즉 마땅히 행하여야 할 원리(所當然之則)나 선(善)으로서의 덕목(윤사순, 1983)을 말하는 것이다. 예(禮)는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표현하는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양식으로 인간의 공공적 마음(public-mindedness) 또는 비이기적인 마음을 실현하는 합리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실천방안으로는 타인에 대한 존경과 경양의 마음, 인간과 사회적 조화를 이루게 해 주는 마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도덕과 신뢰를 키우고 보전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다(威中英(청중잉), 1999). 그러므로 예는 원활한 공동생활체를 유지하기 위한 행동양식으로 일상생활의 몸가짐으로부터 집단적인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의 일정한 법칙(임희규, 1994)을 총칭함을 의미

한다. 한편, Free(1969)에 의하면 '에티켓(etiquette)은 예의(courtesy), 좋은 인품(good taste), 상대방에 대한 배려(consideration with other's)를 실천하는 것'이라 하면서 친절과 공손, 모든 사물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합목적성,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Post(1997)는 에티켓은 '배려와 친절에 바탕을 둔 행동의 규범'이라 하였으며, Boykin(1989)은 '에티켓은 친절, 공손, 공명정대한 정신, 타인의 의견에 관대함, 자제심, 성실한 마음과 적절한 유머, 자존심, 상식에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예절은 자기관리와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한 기능과 화(和)를 근본으로 하는 사회통합(社會統合)과 정체감(正體感) 증대의 기능이 있다(김득중, 1997; 송복, 1989; 이정우·김연화, 1998). 즉 자신에게 속임 없는 양심을 가지고 상대를 편안하게 대하면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인류애(人類愛)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예절의 형식주의 성향은 비실제적(非實際的)인 사고의 유발과 비생산적인 공론(空論)의 경향을 가져와 인간성의 원활한 구현을 저해하게 되고 인간 행동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윤사순, 1983; 김충렬, 1994). 따라서 예절은 지나치면 오히려 예가 되지 않는 과공비례(過恭非禮)가 되기도 하고, 공동체를 중시하다보면 개인의 자율성이나 창의성이 무시되는 등의 역기능적인 면도 지닌다. 그러나 때와 장소, 상황에 적절한 예절의 실천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 사회적으로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 하겠다.

생활예절수행이란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이정우·김연화, 2001)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생활 속에서 모두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약속과 상식적인 것을 언어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즉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가족예절, 공중예절, 사교예절, 가정예절,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이 실제 수행으로 실천되는지를 가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시부부 각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절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둔다.

근래 생활예절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부부에 예절에 대해서는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 연구(윤용진, 1996; 이정덕, 1989; 정정기, 2000)가 있을 뿐이다. 실제로 부부를 쌍으로 생활예절수행과 가정생활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은 미흡하며, 기혼남녀 대상 연구만이 있을 뿐이다.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기혼남녀에 관한 연구결과 기혼남녀의 생활예절수행은 중간점을 상회한 비교적 높은 수준(3.85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식사예절 수행이 가장 높았고 사교예절, 가정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의 순으로 나타났다(이정우·김연화, 2001).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생활예절의식-4.26, 생활예절수행-3.90)와 신세대 주부를 대상으로 한 김지영(2001)의 연구(예절의식-4.33점, 예절수행-3.99점) 모두 생활예절의식에 비해 예절수행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몇몇 연구(김지영, 2001; 이정우·김경아, 1997, 1999; 이정우·김연화, 2001)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생활예절의식이나 관심도가 생활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가정생활에서 부부 각자의 생활 전반에 걸친 예절수행은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부부간은 물론 가족원의 화목과 적응에 중요하다. 더욱이 화목한 가족관계는 가족의 기능을 원활히 하며, 그 결과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 2. 가족체계역동성

Olson, Sprenkle & Russell(1979)이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으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한 순환모델을 사용한 이후, 가족역동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가족체계는 인적 하위체계와 관리적 하위체계로 구성되고 이 두 하위체계는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그리고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 그리고 기능성으로 대표되는 체계역동성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촉진된다. 이는 건전한 가족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며, 효율적인 체계의 공동상승효과(synergistic-mechanism)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체계내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족체계는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지니며, 전체로서 그 자체의 발달 특성을 갖는다(Deacon & Firebaugh, 1988; 가정관리학 연구회 옮김, 1991). 한편 Olson et al.(1979)은 가족체계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하는 50개의 개념들을 종합 분석한 후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및 의사소통 등의 3가지 개념이 이 모두를 함축적으로 대표할 수 있음을 밝혔다.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원간에 갖게 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Olson et al., 1983), 이들은 하위지표로는 가족 공동의 시간과 가족원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친구관계, 의사결정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여가공유 등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변인들로 측정되는 응집성은 과잉분리, 분리, 연결, 매우 밀착이라는 4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가족적응력은 가족체계가 상황적이거나 발달에 대응하여 권력구조와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말한다. 측정은 가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 리더십, 부모의 양육태도, 타협방식, 역할관계, 가족규칙의 융통성 등 여섯 요인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경직, 구조, 융통, 혼돈의 4수준으로 구분된다(Olson et al., 1983). 또한 순환모델에서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두 차원을 이동시키는 촉매역할(Galvin & Brommel, 1982; Olson et al., 1979)을 하므로 의사소통은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더 약화시킬 수도 혹은 향상시킬 수도 있다(Olson & Olson, 21세기가족문화연구소 편역, 2002). 특히 현대사회는 핵가족이 주를 이루며 핵가족의 기초는 부부관계이므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효율적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역기능적이고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부부관계에 심한 장애가

초래된다. 더욱이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 결함은 불만과 갈등을 축적 심화시켜 가정의 안정과 개인의 행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박정자, 1982).

한편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기능과 곡선적 또는 선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정상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및 의사소통을 연구한 여러 연구(김수연·김득성, 1993; 김진희, 1989; 전귀연, 1999; 전귀연·최보가, 1993; 최규련, 1994, 1995)에 의하면 가족응집성·가족적응력과 가족의 기능과의 관계가 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명자(1992)의 연구에 의하면, 중년기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은 가족의 응집성, 적응력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역기능적이라는 Olson(1986)의 중심가설과는 상이한 양상이다. 그러나 정상가족에 있어 높은 수준의 응집성과 적응력이 가족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직선의 가설을 제시하는 연구(Bolsen & Olson, 1985; Smith, 1985)와는 유사한 경향이다. 따라서 한국의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에 대한 선형적 가설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김명자, 1992; 이정우·이미선, 1995).

그럼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역동성의 하위영역 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 의사소통과 생활예절수행, 심리적 복지감간의 선형성을 가정하고, 이들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심리적 복지감

오늘날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는 안녕(well-being), 복지(welfare), 생활수준(standard of life), 만족도(satisfaction), 행복감(happiness)과 같은 용어로도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 심리적 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리적 복지감은 객관적 또는 주관적인 개념으로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실제로 초기의 연구(Bubolz et al., 1980; Berry & Williams, 1987; 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에서는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들이 생활의 질이나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Bubolz & Lee, 1991).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는 자원만족도 같은 주관적 지표들이 인간 삶의 질에 크게 기여하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Ackerman & Paolucci, 1983 등). 장재정(1987)은 심리적 복지가 객관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개인의 경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지각이라고 하였다. 이는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심리적 복지감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인간의 삶의 질은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서만 측정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박경태 등, 1995). 한국의 경우에도 삶의 질에 대한 지표가 주로 객관적인

생활조건에 한정되는 경향이었으나 점차 객관적 요인과 주관적 요인을 중시하며, 삶의 질과 심리적 복지감의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그러나 객관적 조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될 때는 삶의 질과 심리적 복지감은 동의어로 쓰인다.

한편 심리적 복지감에 관련된 연구(김명자, 1992; 신기영, 1999; 이희정, 1994; Umberson, 1989)에서는 자아존중감, 행복감, 긍·부정적인 정서, 결혼만족도와 부모역할만족도 같은 하위영역별 만족도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우울증, 불안 등을 하위영역으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심리적 복지감을 임상환자에게 적용되는 불안이나 우울감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만 측정할 경우 이것을 일반가정에 적용 할 때는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이희정, 1994). 그러므로 최근에는 생활에 대한 모든 측면의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도 하며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또는 행복도 등을 하위영역으로 구성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신기영, 1999; 이형실, 200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결론적으로 심리적 복지감은 자신과 자신의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갖는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신기영, 1999)에서 개인의 생활복지 상태를 구성해 주는 중요한 영역으로 나타난 자신에 대한 긍정적 태도인 자아존중감과, 현재 자신의 전반적인 가정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인 가정생활만족도를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으로 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앞서 제시한 생활예절과 심리적 복지감의 일부 하위영역에 대한 연구결과(이정우·김경아, 1999, 이정우·김연화, 2001)로 미루어 보아 생활예절수행정도가 높은 부부의 가정은 가족간에 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으며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가족체계역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정도가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들 변인들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관련변인 고찰

부부의 생활예절수행·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 관련된 선행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그래서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등 각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을 객관적 변인과 주관적 변인 및 생활예절 변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객관적 변인

##### (1) 성별

성별에 따른 전체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김연화, 2001). 그러나 하위영역 중 식사예절에서는 기혼남성보다 기혼여성이 예절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에 따

른 가족체계역동성을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의 경우 중년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김명자(1992)의 연구에서는 남편보다 부인이 가족응집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임수미(1995)의 연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족적응력의 경우에는 부부간에 차이가 없었으나(김명자, 1992; 김수연·김득성, 1993; 최규련, 1994), Olson 등(1983)과 임수미(1995)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가족적응력이 남편보다 높았다. 성별에 따른 의사소통도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성별에 따른 부부간의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면 하위영역인 가정생활만족감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차가 없었다(Andrew & Withey, 1976; Campbell et al., 1976). 한편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최규련(1995)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아 연구결과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연령

연령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높았으며(이정우·김경아, 1997; 이정우·김연화, 2001), 기혼남성의 경우(이정우·김연화, 2001)도 연령이 높은 집단이 생활예절 수행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가족체계역동성을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의 경우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적응력의 경우는 박경숙·김명자(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연령이 높을수록 주부들의 가족적응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정자·김갑숙(1996)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연령이 낮을수록 적응력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연령에 따라 가족적응력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부간의 의사소통도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의사소통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박혜경, 1992; 이정우·이정숙, 1992), 하상희(1994)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연령이 낮을수록 대화빈도는 높지만 대화친밀도와 대화일치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연구는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순기(2001), 노유자(1988), Andrew & Withey(1976)의 연구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게 나타났으나 박미석(1996)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 (3) 교육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경아(1997)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길표(1997)의 연구에서는 일부 하위영역에서만 차이를 보인다. 반면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과 생활예절수행간에는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체계역동성을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의 경우 남편과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 때 가족응집성이 높았으나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가족응집성이 높은 가정이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적응력의 경우, 김수연·김득성(1994)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응력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부부간 의사소통은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박혜경, 1992; 이정우 외, 1998; Deacon & Firebaugh, 1975) 김진희(1989)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라 의사소통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 관해서는 교육수준이 삶의 질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박미석, 1996; Campbell et al., 1976)가 있는 반면 중년기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Walker, Bubolz & Lee, 1991)에서는 교육수준이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몇몇 연구(Barnett, 1992; Ulbrich, 1988)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여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없다.

## (4) 직업유형

직업유형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지만, 이정우·김경아(1997)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업주부의 경우보다는 취업주부가 생활예절수행정도가 높았다. 직업유형에 따른 가족체계역동성을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의 경우 주부의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김진희, 1989; 안선영, 1994) 또한 가족적응력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안선영, 1994). 한편 직업유형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 연구에 의하면(신기영, 1999), 취업주부에게는 가족역할 및 직업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에 대한 긴장과 갈등이 있으나, 그 만큼 만족과 기쁨의 원천이 다양하여 전업주부에 비해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 (5) 종교유형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절수행정도(이정우·김경아, 1997)는 무교인 집단보다 종교가 있는 집단이 제사예절수행정도가 더 낮았으며 이정우·김연화(2001)에 의하면 불교 집단이 기독교 집단보다 가정의례수행도가 높았다. 이는 종교적 특성에 따른 제사 절차에서 기인한 듯 하다. 가족체계역동성을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의 경우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는 가정내 공동된 종교가 있는 경우에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진희(1989)의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가족응집성 차이가 없었다. 또한 안선영(1994)의 연구에서 종교가 있는 경우에 가족적응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최규련(1994)의 연구에서

는 부부간 종교가 일치할 경우 가족적응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복지감은, 신기영·이기영(1997), Campbell et al.(1976), Hey(1971)의 연구에 의하면 종교는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자녀수

자녀수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정도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결과, 사교예절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자녀수가 한 명인 집단보다 세 명 이상인 집단이 사교예절수행 정도가 높았다. 가족체계역동성을 살펴보면, 김정희(1998)와 김진희(1989)의 연구결과에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았다.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이미선(1995)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1~2명인 가족이 3명 이상인 가족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았다. 고정자·김갑숙(1996)의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편과 부인 모두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적응력의 경우는 자녀수가 적은 경우에 높았다(김진희, 1989; 이정우·김연화, 2001). 한편 자녀수에 따른 의사소통은 대부분 자녀가 없거나 자녀수가 적을수록 부부간 의사소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김진희, 1989; 하상희, 1994) 몇몇 연구(박혜경, 1992; 허윤경, 1997)에서는 자녀수에 따라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자녀수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들은 일치하지 않았다. 즉 자녀수는 삶의 질(Berry & Williams, 1987)이나 행복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Adous & Ganey, 1999, 강기연, 2000 재인용) 몇몇 연구(Campbell et al., 1976; Higgins et al., 1994; Mills et al., 1992; Walker et al., 1991에서 재인용)에서는 자녀 문제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관적 변인

#### (1) 생활수준인지도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른 부부나 기혼 남녀의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른 가족체계역동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생활수준인지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 관한 연구결과 생활수준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기영, 1984), 주부의 생활수준인지도가 높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이정우·박은아, 1995).

#### (2) 자원적정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생활예절을 수행하는 데는 가족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요구되므로, 사용 가능한 자원이 적정하고 만족스럽다고 인지할수록 생활 속에서 예절을 잘 수행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원적정인지도와 가족체계역동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가족체계역동성을 원활하게 하는 데에는 어

는 정도의 자원이 필요할 경우도 있으므로 자원적정인지도는 가족체계역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자원적정인지도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는 Walker et al.(1991)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자원적정인지도는 삶의 질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 (3) 성역할태도

성역할태도에 따른 생활예절수행에 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Bem의 성역할태도를 심리변인으로 하여 대학생들의 생활예절에 대한 관심도를 연구한 이정우·김연화(1996)의 연구에서는 생활예절에 대한 관심도는 성역할태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성역할태도에 따른 가족체계역동성은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인 집단이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선영, 1994). 즉, 전통적 가부장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을수록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이 높았다. 또한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도는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일수록 원활하였으나(김금옥, 1998), 심혜선(2001)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에 따른 부부간의 의사소통도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성역할태도에 따른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 (4) 운명지향성, 개혁성향

운명지향성 내지 개혁성향과 생활예절수행이나 가족체계역동성,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가치지향성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므로, 생활예절수행 정도 및 가족체계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쳐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되어 본 연구에서는 운명지향성 변인과 개혁성향 변인을 선정하였다.

#### (5) 건강상태인지도

건강상태와 생활예절수행 및 가족체계역동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편 건강상태인지도와 심리적 복지감의 경우 하위영역인 가정생활만족도는 취업주부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인지할 때 행복도 및 생활만족도가 높았다(이정은, 1998; Caycedo & Rollins, 1989; 강기연, 2000 재인용; Walker, et al., 1989, 1991).

### 3) 생활예절변인

#### (1) 예절교육수강여부

예절교육수강여부가 생활예절수행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우·김연화, 2001; 이정우·김경아, 1997). 예절교육수강여부와 가족체계역동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결과, 생활예절교육수강여부에 따라 가족적응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예절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가족적응력이 높게 나타나 예절교육이 가족적응력에 중요한 변인

임을 보여준다. 한편 예절교육수강여부와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하위영역인 자아존중감을 변인으로 한 연구에서는 기혼남녀의 경우, 예절교육수강여부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차이가 없었다(이정우·김연화, 2001).

(2) 예절중요성인지도

예절중요성인지도에 따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심리적 복지감간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몇몇 연구(이정우·김경아, 1999; 이정우·김연화, 2001)에서 생활예절의식이나 관심도는 생활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미루어 보아 예절중요성인지도는 생활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예절수행을 잘함으로써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력이 높아져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가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예절을 얼마나 중요시하느냐는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예절중요성인지도를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이론적 고찰을 기초로 하여 도시 부부의 배경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도시 부부의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인 수준은 어떠하며, 이들 변인은 부부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도시부부의 배경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간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2.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설문지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종교유형, 자녀수)과 생활수준인지도 1문항, 자원적정인지도 6문항, 성역할태도 8문항, 운명지향성 4문항, 개혁성향 3문항, 건강상태인지도 1문항 등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예절교육수강여부는 가정이외의 사회교육이나 직장 등에서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 여부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예절중요성인지도는 가족예절, 공중예절, 사교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과 생활전반에 있어서 예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지하는지를 총 8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한편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이란 남편과 부인이 각자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어느 정도 실천하느냐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

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국내의 예절수행척도(이정우·김경아, 1997; 이정우·김명나, 1999; 이정우·김연화, 2001)를 기초로 가족예절, 공중예절, 사교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 등의 7개 하위영역으로 5점 Likert 척도의 총 3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체계역동성이란 부부가 가족체계 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가족응집성과 적응력을 발전시키고 통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의사소통도의 3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가족응집성 및 적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Olson, Porter & Lavee(1985)가 개발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력 척도인 FACESIII(The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Evaluation III, 1985: FACES III)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연실(1996), 김수연(1998)의 설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에 각각 5점 Likert 척도의 8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의사소통도 척도는 김경숙(1993), 장병욱(1997)의 연구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5점 Likert 척도의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심리적 복지감을 측정하는 하위영역으로 가정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을 구성하였다. 가정생활만족도는 Hayes & Stinnett(1971)의 중년기 생활만족도 척도(MYLSS), Diener et al.(1985)이 개발한 생활만족척도(SWLS)와 최동숙(1991), 강기연(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총 10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1972)의 척도를 사용한, 이영자(1996), 송말희(1999)의 척도를 기초로 수정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4문항 등 총 9문항으로 선정하였다. 척도는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서 사용하였다. 각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표 1> 척도의 신뢰도

변인		문항수	Cronbach's $\alpha$
주관적 변인	자원적정인지도	6	.68
	성역할태도	8	.72
	운명지향성	4	.74
	개혁성향	3	.54
생활예절 변인	예절중요성인지도	8	.84
생활예절 수행	가족예절	5	.84
	공중예절	6	.78
	사교예절	5	.79
	가정의례	5	.74
	식사예절	7	.72
	대화예절	5	.65
	인사예절	3	.59
	전체	36	.91
가족체계 역동성	가족응집성	8	.84
	가족적응력	8	.71
	의사소통도	5	.88
	전체	21	.91
심리적 복지감		19	.88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혼인한 지 만 3년 이상 되고 1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로 한정하였다. 예비 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보완한 후 2001년 6월 22일~7월 29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026부(513쌍)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자료분석을 위해 요인분석, Cronbach'  $\alpha$  계수,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paired t-test를 산출하였다. 배경변인, 생활예절수행과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경로모형을 구성하고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sson)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에 이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PC WIN과 LISREL8.0을 이용하였다<sup>2)</sup>.

IV. 결과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객관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대상의 배경변인 중 객관적 변인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의 객관적 변인의 일반적 특성 (N=513쌍)

변 인	구 분	남 편		부 인	
		빈 도	%	빈 도	%
연 령	35세 미만	17	3.3	50	9.7
	35세~40세 미만	79	15.4	137	26.8
	40세~45세 미만	188	36.6	194	37.8
	45세~50세 미만	142	27.7	92	17.9
	50세 이상	87	17.0	40	7.8
교육수준	고졸이하	142	27.7	250	48.7
	대 졸	289	56.3	227	44.2
	대학원졸	82	16.0	36	7.0
직업유형	무직, 연금생활자/전업주부	27	5.3	343	66.9
	단순노부/생산기능	38	7.4	35	6.8
	사무직	122	23.8	31	6.0
	자영직	131	25.5	47	9.2
	전문직/관리직	195	38.0	57	11.1
종교유형	기독교	132	25.7	158	30.8
	불교	94	18.3	113	22.0
	천주교	71	13.8	106	20.7
	무 교	216	42.1	136	26.5
자녀수	1명	66	12.9	66	12.9
	2명	369	71.9	369	71.9
	3명 이상	78	15.2	78	15.2

2) SPSS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후 LISREL 8.0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관적 변인·생활예절변인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중 주관적 변인과 생활예절변인의 일반적 수준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의 주관적변인·생활예절변인의 일반적 수준

변 인	남편(N=513)		부인(N=513)		paired-t값 및 유의도		
	M/N	SD/%	M/N	SD/%			
주관적 변인	생활수준인지도	3.08	.73	3.03	.78	1.97	
	자원적정인지도	3.25	.55	3.27	.62	-.76	
	성역할태도	3.28	.56	2.98	.62	9.55***	
	운명지향성	2.26	.74	2.27	.72	-.22	
	개혁성향	3.50	.63	3.55	.65	-1.66	
	건강상태인지도	3.54	.71	3.34	.78	4.93***	
생활예절 변인	예절교육수강여부	유	58(n)	11.3(%)	89(n)	17.3(%)	$\chi^2 = 7.63^{**}$
		무	455(n)	88.7(%)	424(n)	82.7(%)	
	예절중요성인지도	4.03	.52	4.09	.51	-2.28*	

\*p<.05 \*\*p<.01 \*\*\*p<.001

부부의 주관적 변인 중 생활수준인지도, 성역할태도, 건강상태인지도에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의 생활수준인지도의 경우 남편이(3.08점) 부인보다(3.03점) 약간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태도의 경우 부인이(2.98점) 남편보다(3.28점) 더 근대적인 성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할태도가 근대적인 성향으로 나타난 강기연(2000), 최규련(199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 부부 모두 비교적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편이나 남편이 부인보다 건강상태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원적정인지도, 운명지향성과 개혁성향은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변인 중 예절교육수강여부는 부인이(17.3%) 남편보다(11.3%) 예절교육수강비율이 더 높았으나, 부인과 남편 모두 예절교육을 받은 비율은 낮았다. 생활예절중요성인지도의 경우 부부 모두 생활전반에 걸쳐 예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생활예절성인지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가정 내에서 예절을 실천·교육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2.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의 수준

1)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부부 각각의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은 <표 4>와 같다.



<표 4> 생활예절수행의 일반적 수준

구 분	생활예절수행															
	가족예절		공중예절		사교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		전 체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M	SD
남 편	3.83	.60	3.97	.61	4.14	.56	4.16	.59	3.88	.53	3.69	.57	3.96	.60	3.94	.42
부 인	3.80	.56	4.20	.53	4.27	.48	3.89	.62	4.07	.48	3.62	.54	4.00	.56	3.99	.39
paired-t값 및 유의도	1.20		-7.48***		-4.62***		8.79***		-7.08***		2.21*		-1.24		-1.90	

조사대상자들의 생활예절수행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남편 3.94점, 부인 3.99점으로 비교적 생활예절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에 전체 생활예절수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가정의례가 4.16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인의 경우에는 사교예절수행이 4.27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보다 남편의 생활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난 하위영역은 가정의례와 대화예절수행이며, 부인이 남편보다 공중예절, 사교예절, 그리고 식사예절수행 정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남편의 경우 가정의례에 대한 수행도가 가장 높았으며 가정의례수행에서 부인보다 높게 나타난 점은 제사나 경조·부조 서식, 의례참가 등 의례준비나 진행을 남편들이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인의 대화예절, 가족예절, 가정의례 수행정도가 다른 생활예절수행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선행연구(이길표, 1997; 이정우·김경아, 1997; 이정우·김연화, 2001)와 일치하는 것이다. 부인의 가족예절과 대화예절의 실천은 자녀에게도 모델이 되고 부부관계와 사회예절의 기초가 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가족체계역동성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가족체계역동성의 일반적 수준은 <표 5>와 같다. 가족체계역동성의 전체 점수는 5점 만점에 남편은 3.61점, 부인은 3.6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부부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하위영역 중 부부 모두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력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에 비해 부인의 응집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명자, 1992; 박경숙, 1993; 최규련, 1994)와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부부간에 가족적응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선행연구(김명자, 1992; 김수연·김득성, 1993; 최규련, 1994)와 기혼남녀의 가족적응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이정우·김연화(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소통도에서는 남편이(3.41점) 부인보다(3.33점) 부부간에 의사소통도가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간에 의사소통에 대한 기대수준이 남편보다 부인이 더 높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

로 생각된다.

<표 5> 가족체계역동성의 일반적 수준

구 분	가족체계역동성							
	가족응집성		가족적응력		의사소통도		전 체	
	M	SD	M	SD	M	SD	M	SD
남 편	3.83	.59	3.49	.54	3.41	.69	3.61	.51
부 인	3.85	.60	3.48	.55	3.33	.80	3.60	.54
paired-t값 및 유의도	-.95		.47		2.60**		.65	

3)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본 조사대상자의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수준은 <표 6>과 같다.

<표 6> 심리적 복지감의 일반적 수준

구 분	심리적 복지감					
	가정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		전 체	
	M	SD	M	SD	M	SD
남 편	3.54	.52	3.78	.55	3.65	.46
부 인	3.35	.58	3.65	.60	3.50	.50
paired-t값 및 유의도	7.50***		3.88***		6.40***	

부부의 전체 심리적 복지감은 부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하위영역 모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전체 심리적 복지감과 가정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모두 남편이 부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 정서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나, 남편이 부인보다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장기연, 2001; 김경신·김오남, 1998; 임희규, 1994; Reynolds, 1991)결과와 유사하다.

3. 배경변인·생활예절수행·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

- 1) 남편의 배경변인·생활예절수행·가족체계역동성·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

<표 7>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종속 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심리적 복지감
		가족예절	사교예절	식사예절	인사예절	가족	의사	
						응집성	소통도	
독립 변인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객관적 변인	연령	-	-	-	-	-	-	-.069 <sup>*</sup>
	교육수준	-	-	-	-.116 <sup>**</sup>	-	-	-
	종교 유형	기독교	-	-	-	-	.080 <sup>*</sup>	-
		천주교	-	-	-.087 <sup>*</sup>	-	-	-
	자녀수	-.099 <sup>*</sup>	-	-.094 <sup>*</sup>	-	-.101 <sup>**</sup>	-	-
주관적 변인	생활수준인지도	-	-	-	-	-	-	.206 <sup>***</sup>
	자원적정인지도	.177 <sup>***</sup>	.111 <sup>**</sup>	.216 <sup>***</sup>	.100 <sup>*</sup>	.130 <sup>***</sup>	.257 <sup>***</sup>	.174 <sup>***</sup>
	운명지향성	-.083 <sup>*</sup>	-	-	-.094 <sup>*</sup>	-	-	-.089 <sup>**</sup>
	개혁성향	-	-	-	.092 <sup>*</sup>	.076 <sup>*</sup>	-	-
	건강상태인지도	.090 <sup>*</sup>	-	-	-	-	-	-
생활예절 변인	예절교육수강여부(유)	-	.084 <sup>*</sup>	.168 <sup>***</sup>	-	-	-	-
	예절중요성인지도	.378 <sup>***</sup>	.412 <sup>***</sup>	.429 <sup>***</sup>	.306 <sup>***</sup>	.139 <sup>***</sup>	-	-
생활예절 수행	가족예절	/	/	/	/	.437 <sup>***</sup>	.352 <sup>***</sup>	-
	사교예절	/	/	/	/	-	.105 <sup>*</sup>	-
	식사예절	/	/	/	/	.170 <sup>***</sup>	-	-
	인사예절	/	/	/	/	-	-	.136 <sup>***</sup>
가족체계 역동성	가족응집성	/	/	/	/	/	/	.245 <sup>***</sup>
	의사소통도	/	/	/	/	/	/	.344 <sup>***</sup>
상수		1.521	1.947	1.606	2.484	.252	.249	1.211
F 및 유의도		34.082 <sup>***</sup>	43.544 <sup>***</sup>	44.930 <sup>***</sup>	19.901 <sup>***</sup>	78.834 <sup>***</sup>	53.475 <sup>***</sup>	90.258 <sup>***</sup>
R <sup>2</sup>		.260	.210	.317	.171	.509	.317	.601

※ 가변인 : 종교유형 - 기준 : 무교, 비교 : 기독교, 불교, 천주교  
 예절교육수강여부 - 기준 : 무, 비교 : 유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영향변인들의 인과관계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1>과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직·간접 인과효과는 <표 8>과 같다.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한 변인 중에서 12개의 배경변인(가변인 포함)이 생활예절수행(4개변인)과 가족체계역동성(2개변인) 변인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에는 생활수준인지도( $\beta=.206$ ), 자원적정인지도( $\beta=.174$ ), 운명지향성( $\beta=-.089$ ), 연령( $\beta=-.069$ )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수행의 하위영역 중에는 인사예절수행( $\beta=.136$ )이, 가족체계역동성 중에서는 의사소통도( $\beta=.344$ ), 가족응집성( $\beta=.245$ )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이들 변인은 심리적 복지감의 전체변량을 60%를 설명하고 있다. 즉, 생활수준이 높고 인지할수록, 자원적정인지도가 높을수록, 운명통제적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인사예절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또한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았다.

한편 배경변인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교육수준은 인사예절수행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교유형은 기독교인 경우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

녀수는 가족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식사예절수행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족예절수행정도가 높으며, 이는 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수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Walker et al.(1991)의 연구와 유사하며, 자녀수가 적을수록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이정우·강기연, 1998; 임희규, 1994; 임정빈, 1988; Mills & Grasmick, 1992) 결과와도 유사하다.

자원적정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인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배경변인 중 심리적 복지감에 가장 큰 인과효과를 지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원적정인지도가 삶의 질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Walker et al.(1991)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자원적정인지도가 가정생활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몇몇 연구(김경숙, 1993, 장병욱, 1997)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운명지향성은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영향은 가족예절, 인사예절,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가치지향성이 운명지향적이면 가족예절수행 정도가 낮아지며, 그 결과 가족응집성이 낮아지면서 부부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해 심리적 복지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운명통제적일수록 인사예절수행정도가 높아지게 되고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개혁성향은 인사예절과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다. 또한 건강상태인지도는 가족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도시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예절교육수강여부는 사교예절수행, 의사소통도,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즉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편은 사교예절수행정도가 높으며, 이는 부부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예절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남편은 식사예절수행수준이 높으며 그 결과 가족응집성이 높아져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남편들의 예

<표 8>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효과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적효과		
		직접 효과	간접효과	전체 인과효과			
객관적 변인	연령	-.052	-.069	-	-.069	.017	
	교육수준	.152	-	인사예절 경유 : -.016	-.016	.168	
	종교 유형	기독교	.069	-	의사소통도 경유 : .028	.028	.071
		천주교	.050	-	식사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04	-.004	.054
	자녀수	-.080	-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11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2 식사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04 가족응집성 경유 : -.025	-.052	-.028	
주관적 변인	생활 수준인지도	.333	.206	-	.206	.127	
	자원적정 인지도	.498	.174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19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21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4 식사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09 인사예절 경유 : .014 가족응집성 경유 : .032 의사소통도 경유 : .088	.361	.137	
	운명 지향성	-.267	-.089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09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0 인사예절 경유 : -.013	-.121	-.146	
	개혁성향	.078	-	인사예절 경유 : .013 가족응집성 경유 : .019	.032	.046	
	건강상태 인지도	.221	-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10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1	.021	.200	
	예절교육 수강여부(유)	.028	-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3 식사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07	.010	.018	
생활 예절 변인	예절 중요성 인지도	.335	-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40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46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5 식사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18 인사예절 경유 : .042 가족응집성 경유 : .034	.195	.140	
				가족예절			.514
생활 예절 수행	사교예절	.344	-	의사소통도 경유 : .036	.036	.308	
	식사예절	.368	-	가족응집성 경유 : .042	.042	.326	
	인사예절	.317	.136	-	.136	.181	
	가족체계 역동성	가족응집성	.611	.245	-	.245	.366
	의사소통도	.630	.344	-	.344	.286	

\* 총체적 효과 : pearson's correlation

절교육수강 경험과 식사예절수행 정도가 가족간의 화목과 결속을 위해서도 또는 남편 자신의 생활전반에 걸친 심리적 복지감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절중요성인지도는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었다.

한편 생활예절수행 변인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직·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생활예절수행변인 중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등의 변인은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 효과는 없지만, 가족응집성 또는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가족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도를 경유하면서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데 간접효과가 증대하였다. 사교예절수행은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으며, 식사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을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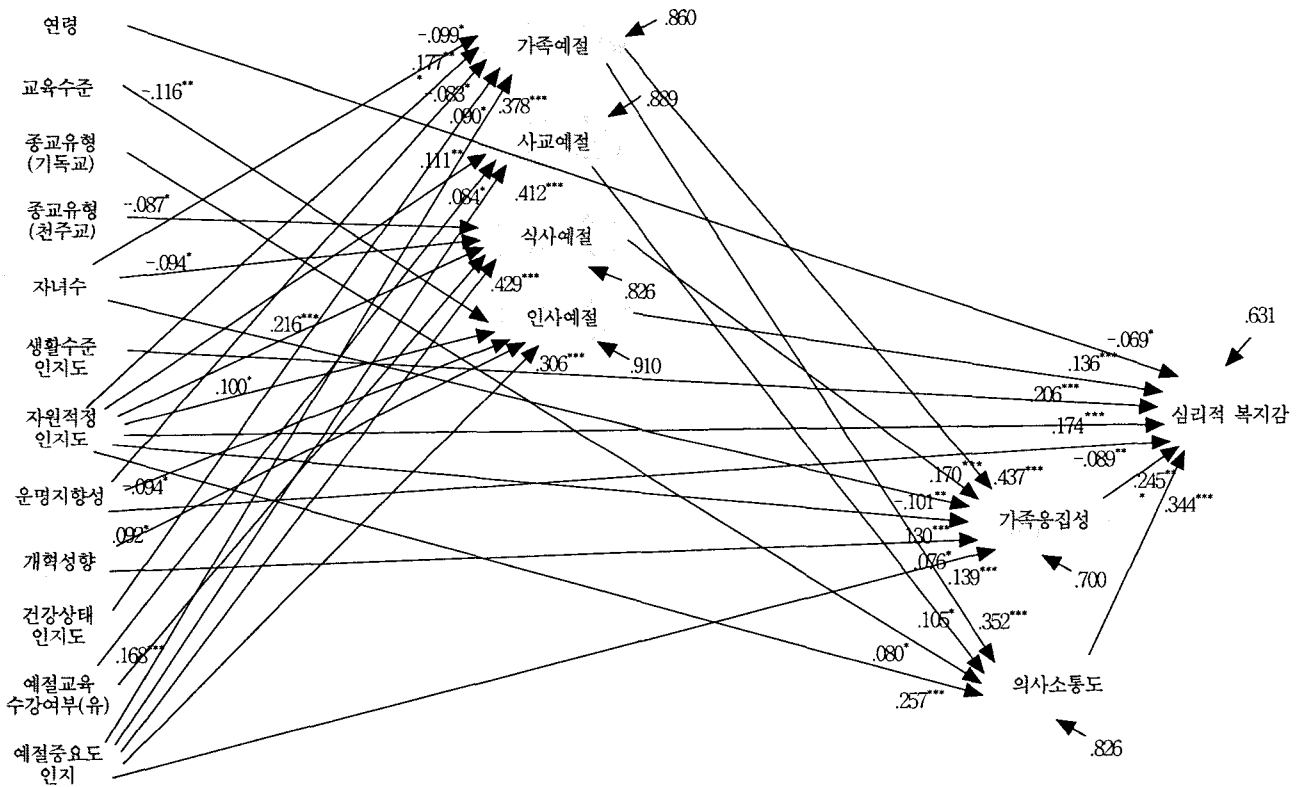
또한 가족체계역동성 변인이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응집성은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예측변인 중 두 번째로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응집성은 자녀수, 자원적정인지도, 개혁성향, 예절중요성인지도, 가족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이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데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이 중년기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명자, 1992)와 유사한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도도 남편의 심

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자원적정인지도 다음으로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 부인의 배경변인·생활예절수행·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

부인의 중다회귀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그림 2>와 같은 인과모형을 구성하였으며,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직·간접 인과효과는 <표 10>과 같다.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영향 미치는 변인들은 배경변인 중에는 자원적정인지도( $\beta=.181$ ), 운명지향성( $\beta=-.162$ ), 생활수준인지도( $\beta=.115$ ), 건강상태인지도( $\beta=.088$ ), 개혁성향( $\beta=-.090$ ), 직업유형(전업주부  $\beta=-.083$ )으로 나타났다. 생활예절수행변인 중에는 가족예절수행( $\beta=.129$ ), 가족체계역동성 변인 중에는 의사소통도( $\beta=.331$ ), 가족응집성( $\beta=.242$ )이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이들 변인은 심리적 복지감의 전체 분산의 62%를 설명하고 있다. 한편 부인의 연령은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수행과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는 전문직보다 단순노무/생산기능직인 경우 사교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종교유형은 기독교 보다 무교의 경우, 가정의례수행과 가족응집성을 매개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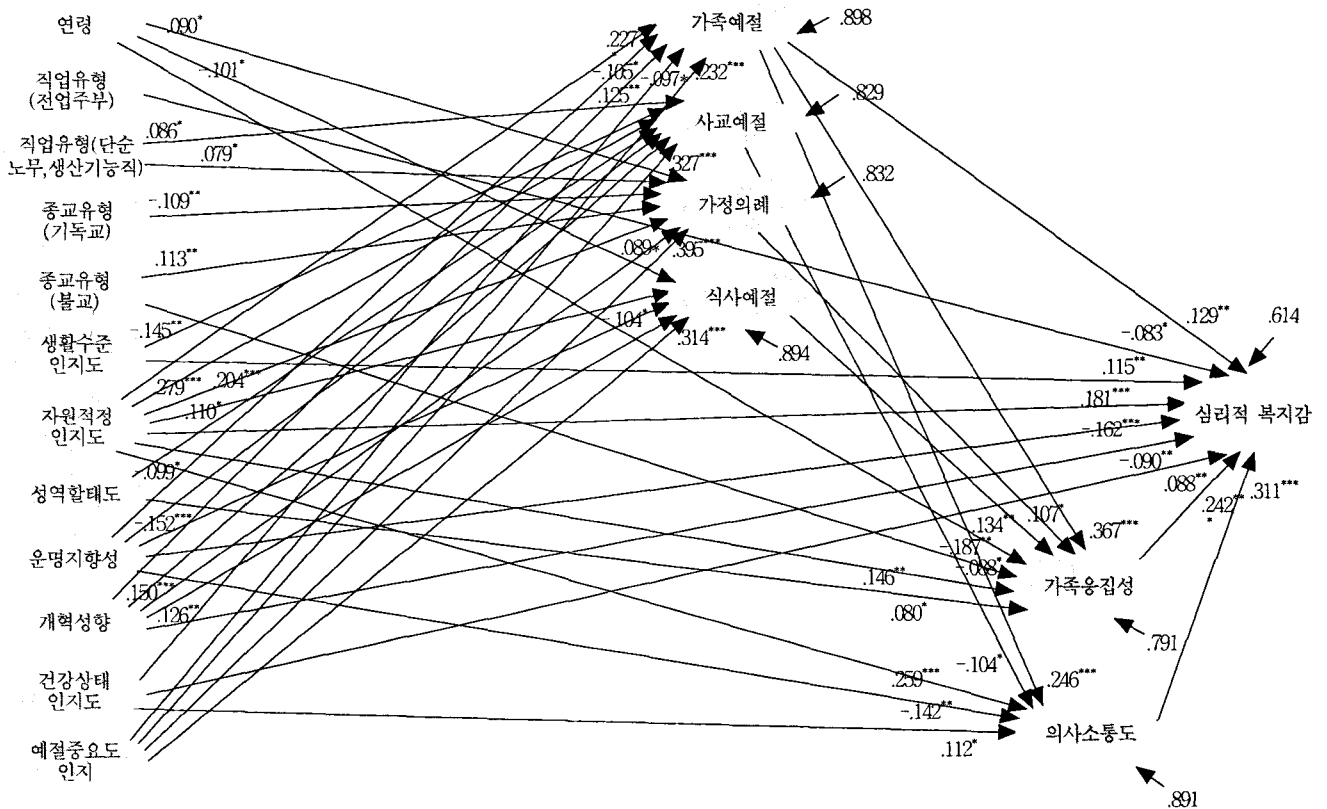


<그림 1> 남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

<표 9>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의 회귀분석

종속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심리적 복지감	
		가족 예절	사교 예절	가정 의례	식사 예절	가족 응집성	의사 소통도		
독립변인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beta$	
개인적 변인	연령	-	-	.090*	-.101*	-.187***	-	-	
	직업 유형	전업주부	-	-	-	-	-	-.083*	
		단순노부/생산기능직	-	.086*	.079*	-	-	-	-
	종교 유형	기독교	-	-	-.109**	-	-	-	-
		불교	-	-	.113**	-	-.088*	-	-
주관적 변인	생활수준인지도	-	-.145**	-	-	-	-	.115**	
	자원적정인지도	.227***	.279***	.204***	.110*	.146**	.259***	.181***	
	성역할태도	-	-.099*	-	-	.080*	-	-	
	운명지향성	-.105*	-.152***	-	-.104*	-	-.142**	-.162***	
	개혁성향	.125**	.150***	.089*	.126**	-	-	-.090**	
	건강상태인지도	-.097*	-	-	-	-	.112*	.088**	
생활예절 변인	예절중요성 인지도	.232***	.327***	.395***	.314***	-	-	-	
생활예절 수행	가족예절	-	-	-	-	.367***	.246***	.129**	
	사교예절	-	-	-	-	-	-.104*	-	
	가정의례	-	-	-	-	.107*	-	-	
	식사예절	-	-	-	-	.134**	-	-	
가족체계 역동성	가족응집성	-	-	-	-	-	-	.242***	
	의사소통도	-	-	-	-	-	-	.331***	
상수		2.093	2.619	585	2.755	1.514	1.575	1.188	
F		22.352***	29.894***	28.928***	22.674***	35.198***	21.792***	66.616***	
R <sup>2</sup>		.194	.313	.307	.201	.375	.207	.623	

※ 가변인 : 직업유형 (부인) - 기준 : 전문직, 비교 : 전업주부, 단순노부/생산기능직, 사무직, 자영업  
종교유형 - 기준 : 무교, 비교 :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림 2>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모형

<표 10>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인과효과

독립변인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적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	전체 인과효과		
객관적 변인	연령		-0.080	-	가정의례×가족응집성 경유 : .002 식사에절×가족응집성 경유 : -.003 가족응집성 경유 : -.045	-0.046	-.034
	직업 유형	전업주부	.002	-.083	-	-.083	.085
		단순노무/ 생산기능직	-.096	-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3 가정의례×가족응집성 경유 : .002	-.001	-.085
	종교 유형	기독교	.085	-	가정의례×가족응집성 경유 : -.003	-.003	.088
		불교	-.161	-	가정의례×가족응집성 경유 : .003 가족응집성 경유 : -.021	-.018	-.143
주관적 변인	생활수준 인지도		.376	.115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5	.120	.256
	자원적정 인지도		.497	.181	가족예절 경유 : .029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20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8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0 가정의례×가족응집성 경유 : .005 식사에절×가족응집성 경유 : .004 가족응집성 경유 : .035 의사소통도 경유 : .086	.368	.129
	성역할태도		.002	-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3 가족응집성 경유 : .019	.022	-.020
	운명지향성		-.377	-.162	가족예절 경유 : -.014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09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9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5 식사에절×가족응집성 경유 : -.003 의사소통도 경유 : -.047	-.239	-.138
	개혁성향		.042	-.080	가족예절 경유 : .016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11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0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5 가정의례×가족응집성 경유 : .002 식사에절×가족응집성 경유 : .004	-.052	.094
	건강상태인지도		.228	.088	가족예절 경유 : -.013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09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08 의사소통도 경유 : .037	.095	.133
	생활 예절 변인	예절중요성 인지도		.128	-	가족예절 경유 : .030 가족예절×가족응집성 경유 : .021 가족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9 사교예절×의사소통도 경유 : -.011 가정의례×가족응집성 경유 : .010 식사에절×가족응집성 경유 : .010	.079
생활 예절 수행	가족예절		.421	.129	가족응집성 경유 : .089 의사소통도 경유 : .081	.299	.122
	사교예절		.246	-	의사소통도 경유 : -.034	-.034	.280
	가정의례		.296	-	가족응집성 경유 : .026	.026	.270
	식사에절		.331	-	가족응집성 경유 : .032	.032	.299
가족 체계 역동성	가족응집성		.575	.242	-	.242	.333
	의사소통도		.639	.331	-	.331	.308

\* 총체적 효과 : pearson's correlation

생활수준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사교예절수행과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자원적정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배경변인 중 가장 큰 인과효과를 지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자원이 적정하더라도 사교예절수행이 낮으면 의사소통도가 낮아지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역할태도는 사교예절수행, 가족응집성, 그리고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반면에 운명지향성은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과 가족응집성, 그리고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미친다. 개혁성향은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인지도는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가족예절을 경유하여, 또는 가족예절과 가족응집성이나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건강상태가 좋다고 인지할수록 의사소통도가 높아져 이에 따라 심리적 복지감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인의 건강상태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이정은, 1998), Walker et al, 1989, 1991) 결과와 일치한다. 예절중요성인지도는 부인의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가정의례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를 매개로 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부인의 생활예절수행이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을 살펴보면 가족예절수행은 도시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효과를 미치는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변이다. 즉 가족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이나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 증가에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동시에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도 미쳤다. 사교예절수행은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영향을 미쳤으며 가정의례수행과 식사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을 경유하면서 심리적 복지감에 간접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매개변인인 가족체계역동성 변인 중 가족응집성은 도시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두 번째로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이 중년기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김명자, 1992)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의사소통도는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접효과가 있었으며, 가장 큰 인과효과를 가지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는 자원적정인지도, 의사소통도와 가족응집성, 가족예절수행정도 등이 인과효과가 높으나 남편에 비해 부인은 자원적

정인지도, 가족예절수행, 운명지향성의 영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도시부부를 대상으로 생활예절수행과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함으로써 가족자원영역분야를 연구하는 데 생활예절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도시부부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가족예절, 공중의례, 사교예절, 가정의례, 식사예절, 대화예절, 인사예절의 7개 하위영역으로 구분해 살펴 본 생활예절수행 척도의 타당성을 살펴보기 위해 LISREL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지면상 제시하지 않음, 김연화(2002)학위논문에는 제시되어있음).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생활예절수행척도는 부부의 생활예절수행 정도를 측정하는 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목적에 따른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부부의 배경변인, 생활예절수행, 가족체계역동성 및 심리적 복지감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 본 결과, 배경변인군은 생활예절수행과 가족체계역동성을 매개로 하여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경변인 중에서는 연령, 종교유형(기독교), 생활수준인지도, 자원적정인지도, 운명지향성, 예절중요성인지도와 매개변인인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가 도시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예절중요인지도와 자원적정인지도는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 가족응집성과 의사소통도를 통해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간접적인 인과효과가 높았다. 궁극적으로 예절중요도인지와 자원적정인지도는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촉진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부 모두에서 매개변인인 생활예절수행은 가족응집성 또는 의사소통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복지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의 생활예절수행 정도가 높을수록 가족의 화목과 결속을 위한 응집성을 증가시키며, 역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심리적 복지감이 향상된다. 이로써 생활예절수행은 가족체계역동성을 원활하게 하며 심리적 복지감을 높이는 중요한 매개변인임이 확인되었다.

한편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매개변인은 생활예절수행변인 중에서는 가족예절수행, 사교예절수행, 식사예절수행이 가족체계역동성 변인에서는 가족응집성, 의사소통도로 나타났다. 남편과 부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가족응집력이 도시 부부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족응집성이 가족적응력 보다 복지감이나 만족도를 예측하는 중요변인이

라는 선행연구(Stuart, 1988; 김명자, 1992에서 재인용)와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높은 자원적정인지도, 운명통제적 태도, 높은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가족의 기능을 건강하게 하며 부부 모두에게 심리적 복지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의 생활예절수행정도는 가족체계역동성과 심리적 복지감을 높여주는 중요한 인적자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예절의 기능인 화(和)의 기능이 가족체계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예절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의 기능만이 아니라 자신 및 가정생활전반에 걸친 주관적인 만족상태인 심리적 복지감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생활예절수행은 자원적정인지도와 함께 가족의 화목이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인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건강한 가정, 부부관계향상을 위해서는 예절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와 함께 예절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예절교육프로그램에서는 가족주기나 가족의 경제적 상황, 직업 등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현재 가정생활교육, 예절교육, 자원관리교육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육을 할 때에는 통합적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자원경영에 영향력이 있음과 척도의 타당성을 입증하였으나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다양한 대상을 중심으로 한 생활예절수행 연구가 기대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기초로 심리적 복지감과 가정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책수립에도 예절교육이 추가되기를 기대한다.

□ 접수 일 : 2002년 11월 15일

□ 심사 일 : 2002년 1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2월 26일

#### 【참 고 문 헌】

- 강기연(2000). 맞벌이 부부의 공평성인지·의사결정 참여 및 가정생활만족도 -사무직, 관리·전문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정자·김갑숙(1996). 가족 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김경숙·이정우(1995). 취업주부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 가정관리능력 및 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11.
- 김금옥(1998). 부부의 성역할 성향과 의사소통도 및 결혼만족도와 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득중(1997). *실천예절개론*. 서울 : 교문사.
- 김명자(1992). 중년기 부부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가족응집성, 적응력 및 복지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 33, 31-55.
- 김수연·김득성(1993). 부부의 응집 및 적응과 의사소통의 관계: 순환모델의 곡선성 대 선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30-39.
- 김수연·김득성(1997). 가족의 응집 및 적응 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59-74.
- 김순기(2001). 기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 후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연화(1999). 대학예절교육의 실제 및 활성화 방안. *세계화 시대의 예절*.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999년 추계학술발표 자료집, 21-36.
- 김연화(2002). 도시부부의 생활예절수행·가족체계역동성·심리적 복지감.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환(1984). 기본생활 예절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정신·노은호(1996). 초등학교 어린이의 예절교육. *한국여성교양학회지*, 3, 235-260.
- 김지영(2001). 신세대주부의 생활예절의식이 생활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충렬(1994). *유가윤리강의*. 서울: 예문서원.
- 박경숙(1993). 중년기 여성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중년기 여성이 지각한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력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1), 121-135.
- 박경태·박병영·유석춘·이선이·이영희(1995).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양적 지표들의 재검토. *한국인의 삶의 질*.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사회발전연구 창간호*, 25-106.
- 박경자(1982). 부부상호간의 의사소통과 가정생활 행복도와 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미석(1996). 중년기 남녀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33-47.
- 송말희(1999). 중년기 주부 대상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성인 미혼자녀와의 관계향상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12), 153-168.
- 신기영(1999). 중년기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역할과 직업보상/비용에 따른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기영·옥선화(1997). 중년기 주부의 가족역할 수행과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111-128.
- 심혜선(2001). 도시 주부의 부부간 의사소통효율성·가정관리전략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선영(1994).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력과 권위유형, 성역할 태도와 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2), 79-91.
- 윤용진(1996). 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예절교재 분석.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1984).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111-127.
- 이길표(1994). 가정규범에 관한 기성세대와 대학생간의 가치의식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2(3), 135-146.
- 이길표(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25-137.
- 이민수 역해(1995). *예기(禮記)*. 서울: 혜원출판사.
- 이연숙(1996). 체계내 역동성 요소에 근거한 가족 유형에 따른 생활



-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4), 71-84.
- 이영자(1996).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 · 이계순 · 오연옥 · 이행숙 · 이명숙 · 김연화 · 김경아(2000). *생활문화와 예절*.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우 · 김연화 · 김명나 · 김경아 · 강기정(2001). *지구촌 생활문화와 국제매너*. 서울: 양서원.
- 이정우 · 강기연(1998). 생태학적 관점에서 본 주부의 가정관리행동 유형과 가정생활만족. *대한민국학술원 논문집 자연과학편* 37, 209-233.
- 이정우 · 김경아(1997). 기혼여성의 생활예절 가치의식 및 생활예절수행-생활규범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건강 ·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지*, 12, 39-55.
- 이정우 · 김경아(1999). 중년기 주부의 생활예절 수행정도에 따른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7(1), 119-132.
- 이정우 · 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교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건강 ·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지*, 14, 1-16.
- 이정우 · 김연화(1996). 대학의 생활예절교육 실제 및 수강효과에 관한 연구- 숙대생을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건강 ·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지*, 창학 90주년 특집호, 3-24.
- 이정우 · 김연화(1998). 대학생의 '생활예절' 관심도 및 수강 후 태도 · 행동 변화에 대한 만족도- 숙대생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2), 161-174.
- 이정우 · 김연화(2000). 사회적 기여를 위한 생활예절교육의 현황과 확산방안. *가족자원경영학의 사회적 기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2000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6-33.
- 이정우 · 김연화(2001). 도시인의 생활예절수행이 가족적응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5(2), 69-86.
- 이정우 · 박은아(1995). 신세대 기혼여성의 가치성향,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아세아 여성연구*, 34, 65-100, 숙명여자대학교.
- 이정우 · 이미선(1995). 취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응집성 · 적응력 및 가사노동수행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3(3), 71-84.
- 이행숙(1998). 대학생의 예절의식과 예절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5, 173-200.
- 이형실(2000). 기혼 취업여성의 가족생활 및 직업생활 경험과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5-37.
- 이희정(1994).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 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1988). 가치성향, 의사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희규(1994). 생활예절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교양학회지*, 창간호, 211-230.
- 장병옥(1997). 취업주부의 부부 역할수행 · 가정생활 기여도 및 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귀연(1999).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전귀연 · 최보가(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3), 116-157.
- 정정기(2000). 「소학집주」, 「소학집주중해」, 「소학질서」 및 「소학지언」을 통해서 분석한 성리학의 부부관.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3), 61-84.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6), 98-114.
- 최동숙(1989). 부부간의 스트레스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1), 165-179.
- 최연실(199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내 심리적 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59-173
-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 · 응집성 평가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 하상희 · 지급수(1999). 부모의 가정교육 태도 및 수행도와 청소년기 자녀의 가정교육 수용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7-33.
- Ackerman, N. & Paolucci, B.(1983). Objective and Subjective Income Adquacy: Their relationship to perceived life quality meas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2, 25-48.
- Andrew, F. M. & Withey, S.(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 Barnett, R. C. & Brennan, R. T.(1995).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xperienc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structural equation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647-656.
- Berry, R. E. & Williams, F. L.(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Feb), 107-106.
- Bubolz, M. M., Walker, R., & Lee, M. S.(1989). *Family and economic stressors and quality of life: A rural-urban comparison*. *Sociological Abstracts*. North Central Sociological Abstracts, North Central Sociological Association.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
- Caycedo, J. C., & Rollins, B. C.(1989). Employment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women in nine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19(2), 1-18.
- Deacon, R. E. & Firebaugh, F. M.(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Boston : Allyn & Bacon, Inc.
- Galvin, K. M. & Brommel, B. J.(1982). *Family communication-cohesion and change*. Illinois : Scoot, Foresman and Company
- Hayes, M. P., & Stinnett, N.(1971). Life Satisfaction of middle-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9), 669-674.
- Higgins, C., Duxbury, L., & Lee, C.(1994). Impact of Life-Cycle Stage and Gender on the Ability to Balance Work and Family Responsibilities. *Family Relations* 43, 144-150.
- Lavee, Y.(1985),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 Integrating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 and*

-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Ph. D., University of Minnesota.
- Mills, R. J., Grasmick, H. g., Morgan, C. S. & Wenk, D.(1992). The effect of gender, family satisfaction, and economic strain on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Relation*, 41(4), 440-446.
- Olson, D. H. & Portner. J.(1983),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Marriage and Family Assessment*, Minneapolis :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H. & Portner. J., Lavee.(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es*,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innesota.
- Olson, D. H. McCubbin. H. L., Bames, H. L., Larsen, A. S., Muxen, M. J., & Wilson, M. A.(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 C. S.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 *Family Process*. 18. 3-28.
- Post, P.(1997), *Emily Post's Etiquette(16th ed.)*,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 Reynolds, W. A.(1991). *Equity, equality, and reward : As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depression, affect, and gender in later life marriages(elderly)*. University of Kentucky. Ph. D
- Rosenberg. M(1972).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Umberson, D.(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1, 999-1012.
- Walker, R., Bubolz, M. H., & Lee, M. S.(1991). Contributions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to quality of family life of mid-life women and men. *Proceedings of 1991 conference workshop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Meeting*.-Family economic well-being the next century challenges, changes, continuity, 167-179.
- Wilson, S. M., & Peterson, G. W.(1988). Life Satisfaction among young adult from rural families. *Family Relations* 37, 84-91.
- Boykin, E, 김영만 편역(1989). *에티켓 사전*, 서울: 을유문화사.
- Olson, D. H. DeFrain, J. Olson, A. K., 21세기 가정문화연구소 편역(2001). *행복한 결혼 건강한 가족*. 서울: 양서원.